대건 중고등학교

주소 : 논산시 논산대로 119

찾아가는 길

1946.04.05. 대건중학교 개교
1951.09.27 대건고등학교 개교

설립자 신부님께서는 논산 성당에 부임하시면서 1947년 설립된 대건 중학교의 대리 경영을 맡아 직, 간접적으로 경제적 측면이나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다. 대건 중학교는 1951년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1956년 새로 부지를 매입하고 본관 2층 6학급을 증축하여 일부가 현재 쌘뽈 여중고등학교 위치에서 이전하게 되었다. 1993년에 현재 신축 교사를 짓고 이전한 논산 대건고등학교는 논산 세무서를 조금 지나면 있다. 본관 건물 앞에는 성재덕 신부님의 흉상과 논산대건고등학교 설립자인 조인원 신부님 흉상이 나란히 있다.
역사관에는 설립자 신부님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성 신부님께서 기증하신 플롯도 전시되어 있다.

(설립자 신부님 흉상)

(역사관의 설립자 자료)

(설립자 신부님이 기증한 플룻)

독서 자료

11월 24일, 본당에 돌아오자 즉시 학교 일에 정신을 쏟아야 했습니다. 봉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교사들이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라리보 주교님과 상의하러 대전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교사들의 요구 사항에 타당성이 있어서 결국 그들의 월급은 4,000원씩 올리기로 했지만, 이것은 1년에 96만원의 추가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한 1949.06.25. 논산에서

지난 3월 14일 시작한 기나긴 여행이 마침내 끝나고 지금은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여 있습니다. 저를 대전성당 주임신부로 임명한다고 하신 주교님께서 뜻을 바꾸어 다시 논산본당 주임신부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논산은 저에게 할당된 "주님의 포도밭"입니다. 논산은 군청 소재지로서, 약 2만 명의 인구가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군 전체의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기차가 날마다 몇 차례씩 이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것이 저의 작은 심심풀이입니다. 두 말할 것 없이 이 작은 도시는 60만 명의 인구가 북적대고 있었던 서울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벌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는 들판을 보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걸어가야 했었지만, 여기서는 벌판이 바로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이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평온하고 조용한 곳인데다 공기가 맑은 곳입니다. 저 멀리 산들이 보이고, 가까이는 논들이 즐비한 평야입니다. 성당 부지는 상당히 넓어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은 땅이 너무 넓어서 그 일부를 농사지을 수 있게 빌려 주었지요. 그 결과로 얼마쯤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본당은 이미 작고한 루블레 신부가 30년 전에 설립한 성당입니다. 그 분의 후임자는 작은 공베르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공베르 신부는 일본인들의 적개심 때문에 전시 동안에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공베르 신부의 후임자로는 적어도 4명의 방인신부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곳에 오랫동안 보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베르 신부는 작으면서도 꽤 아담한 성당과 유럽식 사제관을 지었는데, 이 사제관은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집들에 비교해 보면 궁궐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베르 신부는 또한 수녀들을 위한 집과 작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1500명의 신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800명은 논산 시내에 있고 나머지는 14개의 공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로 걸립된 본당이 있는데, 이 본당은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갑 교구 출신의 베르몽 신부가 설립하여 지금까지 주임신부로 계시는 본당입니다. 한 달에 2번씩 그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고해성사를 받기도 합니다.

베르몽 신부는 착하고 겸손한 노인으로 하느님의 성인이며 많은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분입니다. 논산 성당에서 저는 76세 되신 김명제 신부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은퇴한 이 노인신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돌보아 들릴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더 정확히 말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바로 가톨릭계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공베르 신부가 이 성당을 떠나고 일본이 패망한 후에 어느 한국 신부가 초등학교를 남자 중학교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마침내 서울교구 노주교의 동의를 얻어 냈습니다. 이 학교는 성당부지의 상당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금씩 더 면적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곧 700명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업에 착수할 때 한국 신부들은 위신만 생각할 뿐 그 사업의 장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이곳에 도착하자나자 나는 진짜 함정에 빠져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은 외교인이며 15명의 교사 중에 12명이 역시 외교인들입니다. 유리창의 유리들이 거의 모두 깨져 있습니다. 구 초등학교 건물을 제외하고는 나무와 짚을 섞은 흙으로 지어진 교실들은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학교 재정은 25만원의 빚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학기를 앞두고 2

개의 교실을 신축하고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최단 시일 내에 3백만 원이나 장만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교사들 가운데는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곧 학교를 떠날 것이라고 어제 나에게 통고해 주었습니다. 학교 때문에 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교사들에게 연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외교인이고 빈정거리기 잘 하는 학생들에게 그 선생들을 대신하여 한 주일에 7시간의 수업을 해야만 할 것이니. 아마도 내 청춘시절에 범한 죄 때문에 톡톡히 벌을 받게 될 모양입니다. 학생들은 매월 500원씩의 학비 내고 있습니다.

매년100명의 신입생을 뽑게 되어 있는 이 학교는, 설립된 지 겨우 4년 밖에 되니 않아 현재 학생 수는 4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매년 100명씩의 신입생을 의무적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금으로 1천 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학교에 관한 이 나라의 법률은 매우 엄격합니다. 학교를 설립하자면, 우선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은행에 5백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인가는 전임 한국인 신부가 얻었지만, 5백만 원의 예치금은 아직까지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인가 받은 학교가 유지될 수 없을 때, 국가가 학교와 그 부지를 몰수하고 학교 운영을 맡아 책임집니다. 현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교와 그 부지를 몰수당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한편 이 학교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본 신자들은 이를 지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세운 한국인 신부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신부님이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당이 책임질 수도 없는 사업에 착수했지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이 중학교 하나뿐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지키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인간적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 언젠가는 저도 사표를 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설립한 신부가 그 사업을 계속해서 맡아 했으면 모르지만, 외국인으로서 비신자들에게, 그 사고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지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저 최선을 다해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요.

서한 1949.08.05. 논산에서

중학교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다가 주교님은 이 일을 전혀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15일 전에 학교를 수색하러 온 경찰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30명의 학생과 교사 한 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신자 교사들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10일 전에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100명만 합격시키게 되었는데, 400명의 수험생이 몰려 왔습니다. 300명이나 낙방시켜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00명의 신입생을 뽑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달 중에 교실을 지녀야 하고 교실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만 주교님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학교는 이미 8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 교실 신축 비는 150만원이나 들 것입니다. 신입생 각자에게 3만원씩 내라고 했는데, 모두가 낸다면 3백 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골칫거리.

대건 학교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성재덕 2집)

1949년 6월 1일에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저의 “가톨릭”학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a. 교사진: 교장, 교감, 회계 담당, 그리고 3명의 교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외교인이었으며, 3명의 교우 교사 중 1명의 젊은 교사만 열심이었고 나머지 2명은 그저 물렁물렁한 교우였습니다. 역사 선생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판했고, 체육 선생이라는 아주 막된 젊은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패싸움을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선생은 심심하면 한

번 학교에 나오는 식으로 출근하여 제가 보기에 별로 자격이 없어 보이며, 그들이 나쁜 표양을 보이는 것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b. 학 생: 학생 수는 300명입니다. 그중 몇 명은 아주 모범 소년이나, 불행히도 불량 소년 들이 많습니다. 불량 학생들은 교우 학생들이나 신자들 그리고 장례 행렬의 성 당 진입을 방해하기도 하고 교문을 막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한 학생도 있고 어 떤 학생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교사들을 비방합니다. 교사 사택을 침입하는 일도 있습니다.

c. 학교건물: 전에 있던 두 채의 학교 건물에 두 개의 교실을 새로 지었는데, 너무나 약한 기둥 위에 무거운 지붕을 올려 교실이 피사의 사탑처럼 전체적으로 기울어졌고 견고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d. 재정상태: 금고는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매달 학비를 규칙적으로 내지 못 하나 그렇다고 그 이유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돈은 없는데 지출은 상당합니다. “창설자”가 빈 금고를 채우겠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서도 음악반 학생들을 위해서 유니폼은 있어야 하고, 또 축구반 학생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유니폼이 있어야 하고(다른 학교 보기에 “체면” 문제이므로) 등등…

성재덕 2집 1959년

생제 신부의 학교는 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던 만큼 보상도 따랐습니다. 3월 학년말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모두 졸업장을 취득했습니다(한국에서는 모두에게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일은 대학 합격률이 평균 50%인데 반해 그의 학생 25명이 전원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건학교 졸업생 한 명이 대전에서는 수석이며 한국 전체에서는 3등을 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
지금은 전쟁 공백시기의 여파로 지방 학교의 신입생 진학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더욱이 모든 학교가 학생들을 끌어들이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비싼 입학금(학교 명성에 따라 100,000환부터 40,000환까지 이릅니다)과 매달 기성회비로 생존해 나가므로 입학생이 없거나 저조하면 그만큼 교사 월급을 비롯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생제 신부의 이웃 학교인 농업 국립학교가 입학금을 내리는 바람에 신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선 입학금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중등부에 225명이, 고등부에 110명이 새로 입학하여 중등부엔 총 465명, 고등부엔 3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매달 기성회비를 제대로 납부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거리 버스정류장 (209,416,211,215-1,212,214, 201,104,215,216,202,203,221,410,204,222,205) 승차 → 교촌 2리 정류장 하차 → 은진공소까지 걷기(약4분)

1952년에 지은 소성당 옆에 1956년에 작은 집을 짓고 있다는 기록이 성재덕 신부 서한에 나타남, 현재 공소 한 채만 남아있음.
1949년 성 신부의 지원으로 강당을 짓기 시작했으나 전쟁 발발로 1954년에야 완공, 현재 공소 아래 왼쪽의 신축건물이 성 신부가 기거하곤 했던 집터 위치임
공소 건물을 상량한 해에 태어난 공소회장의 성 신부에 대한 증언

독서자료

1956.03.15. 논산에서

연산에 집 한 채를 매입해서 (비용의 큰 몫을 에댕의 수도원장님이 보내주셨어요) 주일에 교우들이 한데 모일 수 있고 또 저 자신도 어딘가 갈 곳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진에서는 4년 전에 지은 소성당 곁에 작은 집 한 채를 짓고 있습니다. 그곳엘 가면 제가 머물 곳이 없었고 또 성당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